

## 홍길동의 고장, 편백숲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힐링의 고을, 장성군

전라남도 북서부에 자리한 장성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빙 휴양지이자 깊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북쪽으로는 노령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황룡강이 군 중앙을 가로지르며 비옥한 평야를 적시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인구 약 4만 명의 소도시이지만, 축령산 편백숲과 백양사, 필암서원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품고 있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남의 대표 관광명소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의적 홍길동의 탄생지로 알려져 '홍길동의 고장'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

장성 지역은 마한시대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유서 깊은 땅입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했으며, 고현현과 진원현이 설치되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장성현으로 개칭되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호남 내륙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유학자와 의병장을 배출한 충절과 학문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장성군의 문화유산 중 가장 빛나는 보물은 필암서원입니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 하서 김인후를 배향한 서원으로,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확연루, 청절당, 사당 등 건물 배치가 단아하고 품격 있으며, 서원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이 봉행되어 선현의 학덕을 기리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균이 지은 소설 속 홍길동의 실존 인물 모델이 장성 출신이라는 기록이 전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장성군은 '홍길동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생가터와 기념관, 체험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입암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이 왜군에 맞서 싸운 호국의 현장입니다. 성벽과 성문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성곽을 따라 걷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역사 탐방과 등산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 축령산 편백숲과 백양사가 빛어낸 힐링의 명소

장성군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것은 단연 축령산 편백숲입니다. 축령산과 금곡영화마을 일대에 조성된 이 편백숲은 총 100만 그루가 넘는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입니다. 1956년부터 고 임종국 선생이 황폐한 민동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울창한 숲을 이루었으며,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한국 산림

녹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편백숲에서 뿐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심신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은 '치유의 숲'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힐링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숲속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맑은 공기와 은은한 나무 향기가 온몸을 감싸 도시 생활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특히 이른 아침 안개가 피어오를 때의 신비로운 풍경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유명합니다.

백양사는 내장산국립공원 북쪽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로, 장성군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백제 무왕 33년(632년)에 여환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호남 불교의 중심 도량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쌍계루와 대웅전, 극락보전 등 고풍스러운 전각들이 계곡과 노거수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그윽한 산사의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백양사 입구의 쌍계루 앞 연못에 비친 가을 단풍은 한국의 가을 풍경 중 손꼽히는 절경입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이 맑은 물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며, 이 풍경을 담기 위해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몰려듭니다. 봄에는 연분홍 벚꽃이, 여름에는 짙푸른 녹음이,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워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감동을 선사하는 명소입니다.

장성호는 황룡강을 막아 조성한 인공호수로, 수려한 호반 경관을 자랑합니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으며, 봄이면 호수 둑을 따라 벚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룹니다. 장성호 출렁다리는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현수교로, 짜릿한 스릴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 편리한 교통과 수도권 접근성

장성군은 호남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장성IC와 백양사IC를 이용하면 광주까지 약 20분, 전주까지 약 50분, 서울까지 약 3시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KTX 정차역인 장성역이 있어 용산역까지 약 1시간 50분이면 연결되어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국도와 지방도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있어 인근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광주광역시와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광주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지 조건 덕분에 광주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군내 각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여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 다채로운 축제와 살아있는 문화

장성군은 연중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로 활력이 넘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매년

봄에 열리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입니다. 황룡강변을 따라 조성된 노란 유채꽃과 금계국 꽃밭이 장관을 이루며, 봄바람에 일렁이는 노란 꽃물결 사이로 가족, 연인, 친구들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이 축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장성의 대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가을에는 '홍길동축제'가 열립니다. 홍길동의 의로운 정신을 기리며 개최되는 이 축제는 홍길동 캐릭터 퍼레이드, 전통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판매, 각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동화 속 주인공을 만나는 즐거운 체험의 장이 됩니다.

백양사 단풍축제는 가을 단풍 시즌에 맞춰 열리는 문화행사로, 아름다운 단풍 구경과 함께 전통 차 시음,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성 군립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연중 다양한 공연과 강좌가 열려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 맛과 건강을 담은 장성의 특산물

장성군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대표 특산물로는 장성 사과가 유명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 조건에서 자란 장성 사과는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여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가을 수확철이면 사과 직거래 장터가 열려 신선한 사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딸기 역시 장성의 대표 농산물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정성껏 재배한 장성 딸기는 새콤 달콤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으로, 겨울과 봄철 별미로 사랑받습니다. 딸기 체험농장에서는 직접 딸기를 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 인기입니다.

편백숲에서 생산되는 편백 관련 제품도 장성의 특산품입니다. 편백 오일, 편백 베개, 편백 생활용품 등은 천연 항균 효과와 은은한 향기로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성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장성군은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장성읍과 황룡면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와의 접근성을 활용한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개발도 활발합니다. 전국적으로 엘리프 검단 포레뉴와 같이 녹지와 자연환경을 강조한 친환경 주거단지가 주목받는 추세에 맞춰, 장성군 역시 쾌적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겸비한 주거지역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양호합니다. 장성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인근 광

주광역시의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장성군립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료와 복지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성군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가 각 단위로 운영되어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도 운영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근 광주의 대형 종합병원과도 30분 이내로 연결되어 응급 의료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미래 희망의 고을**

장성군은 '문화 웰빙도시 장성'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축령산 편백숲과 백양사를 중심으로 한 산림치유 관광산업 육성, 황룡강변 생태관광벨트 조성,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장성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과 광주와의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는 장성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성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편백숲의 맑은 공기와 백양사의 고즈넉한 정취, 황룡강의 노란 꽃물결과 필암서원의 깊은 학문 정신이 어우러진 장성군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는 보물 같은 고장입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장성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